

“오감만족” 보성 제17회 전어축제 ‘팡파르’

22-23일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

회천면민의 날 축제와 함께 개최

전어 잡기 체험·먹거리 등 ‘다채’

보성군이 여름 바다와 향토 먹거리가 어우러진 오감만족 전어축제를 개최한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7회 보성전어축제’와 ‘제22회 회천면민의 날’ 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회천면민회가 주최하고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감쪽같은 전어 축제! 화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보성의 대표 수산물인 전어와 회천면 특산물 감자, 쪽파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지역 특산물 축제로 기획됐다.

전어축제의 백미인 전어 잡기 체험은 올해부터 안전성을 강화해 울포솔밭해수욕장 개마기장 대신 해변에 마련된 대형 풀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물속에서 살아 있는 전어를 맨손으로 잡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잡



지난해 열린 '제16회 보성전어축제'의 전어 잡기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이 물속에서 전어를 잡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과 전어구이를 맛보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



〈보성군 제공〉

은 전어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고, 포슬포슬한 찐 감자, 향긋한 쪽파 요리와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전어 잡기 체험은 22일 오후 4시와 23일 오전 11시 두 차례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5천원이며, 이 중 5천원은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환급된다.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다.

첫날인 22일은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댜민 노래자랑, 전어 잡기 체험, 평양예술단 공연,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어 잡기 체험,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 보성군립국악단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 감

자·해물파전·옥수수·새우구이 등 먹거리 장터, 어린이 체험 부스, 전어·감자·쪽파 캐릭터 포토존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보성의 9미 중 하나인 전어는 저칼로리·고단백 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체중 조절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잔가시에는 우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칼

슘이 함유돼 성장기 어린이와 건강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김용장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가 휴가철 보성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주요 사업장 5곳 방문…주민 의견 수렴

정인화 광양시장이 8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주요 사업장 5곳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갔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정 시장은 광양읍 도청마을과 옥룡면 외산마을 등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를 비롯해 봉강 상봉마을 농로 확·포장 요청 현장, 여름철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백운산 치유의 숲 등 5곳을 차례로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도청마을과 외산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광양시는 오는 2026년부터 4년간 총 43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조성, 빈집 철거,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봉강면 상봉마을 농로 확·포장 요청 현장에서는 “협소한 도로 폭 확장이나 경사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5일 봉강면 상봉마을을 찾아 농로 확·포장 요청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정 시장은 봉강면 대여소를 찾아 시설 관리 상태와 안전요원 근무 여건을 살피고 폭염 속 노고를 격려했다. 대여소는 봉강·옥룡·진상면 3곳에서 31일까지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명상과 족욕, 아로마테라피 등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정 시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교육’

21일까지 신청 접수…농업 역량 강화

담양군은 7일 “오는 22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가 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 역량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는 나혜진 식품환경연구센터 소장과 백승래 청한컨설팅 대표 등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창업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다룬다.

교육 과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가공장비 사용 안전수칙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21일까지이며, 수료자는 향후 담양군 가공 심화교육과정 참여 및 영농조합법인 가입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담양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이번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가공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센터 운영 기반을 강화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 물놀이장 ‘성황’

10일까지 운영…바닥분수는 이달 말까지

장성군은 7일 “오는 10일까지 홍길동 테마파크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홍길동 테마파크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심이 얕고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어린이도 걱정 없이 놀 수 있다. 물놀이장 주변에 정자, 산책로, 잔디광장도 조성돼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알맞다.

장성군은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등 안전·시설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길동 테마파크 바닥분수는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동된다.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홍길동 테마파크 안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곧 운영이 끝나는 만큼 잊지 말고 방문해 더위를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 청년활동포인트제 안정적 정착

2년 운영…연 최대 10만원 지급

화순군은 7일 “청년 정책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활동포인트제’가 2년 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포인트제는 만 18-49세 청소년이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 또는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누적 1만 포인트 달성 시 연 최대 10만원의 화순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4월 제도를 도입했으며, 1기에는 91명이 신청해 이 중 33명이 총 13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올해는 제도 인식이 확산되면서 135명이 신청

해 활동 중이며, 현재까지 31명이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포인트 적립 대상 활동은 ▲청년센터 홍보 게시물 작성 ▲센터 프로그램 참여 ▲이용 설문조사 참여 ▲청년 관련 군 행사 참여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화순군 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한 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이메일(hwasunyouth@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활동포인트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25일까지…누리집·주민센터 등서

여수시는 7일 “오는 25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03호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이 있는 주택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제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과표팀(061-659-3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드라마촬영장 ‘펫 교복체험’ 무료

순천드라마촬영장은 7일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펫 교복체험’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펫 교복체험’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교복을 입고 드라마촬영장 곳곳을 산책하며 1900-80년대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감성 체험이다.

대여는 촬영장 내 마련된 반려견 전용 복장 대여소인 ‘팡팡이 의상실’(사진에서 진행되며 옛 교복뿐만 아니라 한복, 선글라스, 케이프 등 다양한 소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운영된다.

교복을 입은 반려견과 함께 옛 골목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이 체험은 반려인들에게 정서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 중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드라마촬영장을 배경으로 반려견과 함께 교복을 입고 산책하는 체험은 순천만의 감성을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순천을 대표적인 반려친화 여행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됐으며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